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경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도 일꾼 선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다음 주일(4월 8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금요집회(4월 13일)

‘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은 무리를 붙잡히 여기셨고, 그들을 목자라 없애서 고생할까 유리하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9:35-38). 주님은 일꾼을 왜 세우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양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주님도 기도하시고 열 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마 10:1).

다음 주일(4월8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일꾼 선출 후보자 선정을 당회에 위임하는 일을위해 공동의회로 모이겠다. 일꾼을 선출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해야 한다.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은 제자 강조하지만, 분명히 영혼, 주께서 맡기신 고생하고 유리하는 영혼을 위해 사 존제해야 할 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9일부터 14일까지)

예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갓새나내 동산에 가셨다. 그러나 주님은 땅방석에 꿇말고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그제서서 깊은 잠에 빠졌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눅 22:46)라고 경고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끝이 심각한 실패감과 좌절, 그리고 통곡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다(눅 22:62). 자신의 영혼을 천부께 위탁하신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하리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육체에 그의 영혼이 묶여버렸던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따르기로 했던 승수를 외면하는 시험에 빠졌다. 주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되새기기 위해서 특별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실시된다.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수요일에 빠지자

“악마사관”(수 4:10)

‘솔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축하게 여겨 거하였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없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가?’(수 7:9).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뜻하지 않게 아이성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기도를 하였다. 물론 이스라엘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였지만(수 7:1), 패배의 원인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통함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패배의 고통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그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 그는 에브라임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였고,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다(민 13:8). 그는 가나안 정탐을 위한 12명중의 한 사람으로 뽑혔고,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었다(민 13:16). 그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사를 먹었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경험하였다. 모세가 죽은 후에 자라에게 지도권이 위임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수 1:3). 그런데 지금 그가 부정적인 생각이 빠진 것이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건넌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가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 괴로움을 토해내려 한다.

한 사람의 죄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향력이 있다. 죄란 누락처럼 빠르게 번지는 속성이 있으며, 마침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시키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로 몰았었고, 가롯 유다의 배신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놓았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기에 빠뜨린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피로움으로 가득찬 장이다. 앞의 6장까지는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밟는 곳이 그들의 땅이 되리라는 놀라운 언약이 있었고(1장-3장), 이방인 리합이 구원받은 갈라디가 있었가 하면(5장),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승리가 너무 만났었다(6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상 밖의 패배에 마음이 불안한 여호수아를 위로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리고를 점령할 준비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이새람이 제 길에 었었노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진노의 원인을 말씀하셨고, 죄를 절결한 것을 명명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결코 여호수아 6과해서 저처럼 그의 백성을 침범해 빠뜨리지는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백성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인간 본성의 영향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불복적인 생각이 번져야 하며, 잘못된 것은 속히 돌이킬이 마땅하다. 결코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대해 실망하지 않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건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인도 하옵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땅과 별들을 내가 보노라!”(시 8:3). 다음주 금요일(4월13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집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특별집회에서는 ‘순’이라는 주제말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예정인데, 특히 주제말표를 하게 된 다섯 명의 장로들은 그동안 ‘순’에 대한 말씀을 독상하며 기도로 준비해 왔다. 교회는 앞으로도 금요 집회를 통하여 성령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순’에 대한 주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屬性)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친근하고 밀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순’이라는 개념으로 의인화하고 상징화하여 그의 주권을 묘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을 상실함으로써 타락하고 패배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순’이라는 주제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순’은 십자가와 연관시킬 때, 더욱 커다란 의미와 가치, 그리고 실재성(實在性)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순이 역사적으로 묵박한 곳인 십자가이며, 인간의 더러워진 순이 씻김을 받는 곳도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순이 인간의 부패한 순이 다시금 맞는 곳도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준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신앙 생활

교회의 특징

지난 겨울은 몹시도 눈이 많이 내렸다. 그날도 눈 때문에 자동차 대신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친구 사이인 듯한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손에 이끌려 귀에 들어왔다. 요즘은 모든 세상의 단체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노라고 강변을 한다. 다른 친구들 그 말에 대하여 반론을 하려 하지만 말이 입 속에서만 맴돌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왜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과 특징을 상실하고 젊은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현대의 교회들이 교회의 특징을 잃어 가는 것은 그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교회들이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감당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빛과 소금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면 성도로서 특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성도로서 감당해야할 일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참된 성도가 된다면 자칫 성도로서의 모습이나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들이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외도적으로 유행상동하며, 억지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과 삶 즉 본질이 변해 버린 것이다. 이 때에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자연히 드러났다.

오늘의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권을 고백하게 된다면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어쩌면 그 때에 교회를 압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지는 몰라도 적어도 참된 교회의 본질을 분간 못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임재훈 (목사, 14교구 지도)

AT THE FEET OF JESUS

(Luke 8:35)

"Then they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came to Jesus, and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departed,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For many people it's their sweet homes or a beautifully landscaped park. Some people prefer shopping malls, exercise areas, or tropical vacation islands, and still others like gambling casinos and jazzy night clubs. Of all the places in this world there is only one that is the ultimate best, and that fine place is at the feet of Jesus. Why is this the greatest place? Because it offers the most excellent blessings. Let's look at this place and find out what kind of place it really is.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forgiveness. It is a forgiving place. The poor and sinful woman who wet Jesus' feet with her tears and anointed His feet with perfume at the Pharisee's house received forgiveness (Lk. 7:38). Jesus told her,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Lk. 7:48). The Pharisee who owned the home wasn't happy about Jesus letting this sinner carry on as such (Lk. 7:39). He complained. Although he was in the same place with Jesus, his heart wasn't in the same position as the woman. She was a blessing. He was a curse. He had no excuse. Are you going to be an inexcusable and cursed person or a forgiven and grateful person?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healing. It is a healing place. "And large crowds came to Him, bringing with them those who were lame, crippled, blind, mute, and many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forgiveness. It is a forgiving place.

You find healing. It is a healing place.

You find revelation. It is an asking and learning place.

You find comfort. It is a resting place.

You find meaning and purpose. It is a praying and worship place.

You will find a wonderful place. Don't neglect so great a place of salvation

others, and they laid them down at His feet; and He healed them" (Mt. 15:30). Amen! The crowd marveled as they saw the mute speaking, the crippled restored, and the lame walking, and the blind seeing; and they glorified the God of Israel (Mt. 15:31). That's Jesus! He'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yes and forever (Heb. 13:8)! Is your heart sick? Are you physically and spiritually ill? Do you want to be healed? at the feet of Jesus you will find healing.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revelation. It is an asking and learning place. "One of the synagogue officials named Jairus came up and on seeing Him, fell at His feet and implored Him earnestly, saying, 'My little daughter is at the point of death; please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get well and live'" (Mt. 5:22&23). All Jairus did was ask and his 12 year old daughter lived. The ten lepers asked Jesus for mercy and He cleansed them, and one came back,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and he fell on his face at His feet, giving thanks to Him" (Lk. 17:16). Amen! We learn so much by hearing the Word of God.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comfort. It is a resting place. When Jesus entered the city of the Gerasenes, He was met by a naked man who was possessed with many demons. Jesus commanded the demons to leave him and they did. When the people of the city heard, they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sitting down at the feet of Jesus,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Lk. 8:35). What a change! What a wonderful change for him to be sitting so close to Jesus, at His feet, and in his right mind. Amen! Now he can listen to the king of kings. Now he has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Now he is free. Now he is happy. Jesus call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At His feet you find meaning and purpose. It is a praying and worship place. Think of John and his special encounter with Jesus,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like a dead man. And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saying,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Rev. 1:17). Is this not a praying and worshipping place? John was like a dead man, but Jesus put His beautiful hand on him and asked him not to fear because He is the first and the last. He is everlasting! Don't you want to worship Him? He invited everyone,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2:17). If you want to hear, if you're thirsty, or if you want to drink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come to the feet of Jesus. He invites us to worship. Let's come to Jesus.

At the feet of Jesus you will find a wonderful place. Don't neglect so great a place of salvation (Heb. 2:3). Humble yourself, so that you don't make it a cursing place. Then you can get rid of all your sin, all your sickness, and learn His Word. Also, whatever it is that you want to be asking Him you can ask. It is a freeing place, resting place, and place to pray, worship, praise, and glorify Him. Let's join in worship at the feet of Jesus! 



김성관 목사

예수의 발 앞에서

(눅 8:35)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 마음이 가는 곳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우리집이라고 하거나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헬스장 또는 열대야 식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장이나 나이트 클럽을 좋아할 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가장 좋은 곳이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예수의 발 앞입니다. 왜 이곳이 최고의 장소일까요? 왜냐하면 그 곳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어떠한 장소인지 잘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곳은 용서의 장소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비천하고 최참은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눅 7:38). 그렇지만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죄인을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했습니다(눅 7:39). 비록 그는 예수와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과 달리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의 발 앞은 천한 여자에게는 축복된 곳이었지만, 바리새인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저주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치유의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곳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큰 무리가 절뚰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마

15:30). 아멘! 군중들은 병어리가 말을 하며, 절뚰발이가 치유되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자 놀라워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 15:31). 그들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은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히 13:8).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

(눅 17:16).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곳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의 발 앞은

용서의 장소입니다

치유의 장소입니다

구하고 배우는 제子的 장소입니다

안식의 장소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치유를 맛볼 것입니다.

구하고 배우는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곳은 구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소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막 5:22-23). 아이로는 그제 구했고, 그의 12살 짜리 딸은 살아났습니다. 또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께 자비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귀신들려 별거벗은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귀신들은 그 남자로부터 나가셨습니다. 그 도성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예수께로 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눅 8:35).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고침 받은 그 남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가까이 다가가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는 왕 중의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화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하며 행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기도와 예배의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요한이 예수와 특별히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계 1:17). 이곳이 바로 기도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까? 요한은 거의 죽은 자와 같았지만, 예수께서 그의 아름다운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들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만약 듣기를 원한다면, 목이 마르다면, 그리고 값없는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 나아갑시다.

구원의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아름다운 곳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장소를 간파하지 마십시오(히 2:3).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게 하십시오. 지금 밟고 있는 곳을 저주의 장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죄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그분의 말씀에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자유와 힘이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발 앞 예배의 장소에 참여합시다. ■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충현의 식구

국내외국인선교부

4부 예배가 끝난 무렵, 우리는 교회의 앞마당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다. 중국·스리랑카·몽골·러시아·인도네시아·이란·인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오신 다양한 민족들이 예배를 드린 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한 민족만 모여서 사는 우리 나라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풍경이다. 어느 호텔 앞에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거리감을 가지고, 그저 신기한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친밀한 눈으로 이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그저 외국인이나 아니라 충현의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국내외국인선교부는 4년전 충현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은 몇몇 외국인들이 교회에 충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전도와 양육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국인선교부가 태어났다. 주님의 은혜로 처음 10여 명으로 시작했던 국내외국인선교부에는 이제 13개 나라 240여 명이 속해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전도와 양육으로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충현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충현교회를 통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음은 정말 감사

한 일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자국의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되는 중이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선부 지체들의 주일은 뻘뻘한 편이다. 7시 정도에 기상하여 8시까지 교회버스가 오는 곳으로 나간다. 8시에는 출발해야 10시 성경공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정 버스를 놓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2시에나 교회에 도착하게 된다. 10시에 도착하면 나라별로 성경공부를 갖는다. 11시에는 집회가 있고 집회후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한 후 1시에 있는 4부 예배를 드린다. 예배 이후에는 나라별로 시간을 가지고, 3시에 버스를 타고 귀가하여 5시 정도에 숙소에 도착한다. 격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물론 처음에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친구들의 이유는 대부분 영적인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한다. 그 위로 때문에 이들은 피곤한 중에도 교회를 찾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문화생활로 알고 오는 한국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다. 심지어는 나는 모슬렘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면 이들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믿음은 자신의 나라와 가족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외선부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교사와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한 가지이



△ 외선부 교사들과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의 즐거운 한때

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외국인이나 아니라 충현교회의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이다.

앞으로 10주간에 걸쳐 이 지면을 통해 이 지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한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지면으로나마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 광주지역에서 전도하는 장면

2001년 여름 단기선교단원 모집

나라	인원	기간	지역	비고
몽골	○명	7.30~8.10	○LMTC수료자	의료지역포함
CIS	○명	7.23~8.3	○집중LMTC수료자	의료지역
아프리카	○명	7.23~8.3	○해당지는 부사추천 요망	
스리랑카	○명	8.6~8.17		
방글라데시	○명	8.6~8.17		의료지역
인도	○명	7.30~8.10		

* 항공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간은 역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팀에는 현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도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타 기관 파송 선교사역자 파악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교회는 본 교회 성도 중 개인이나 타 선교기관의 파송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등록을 요망하고 있다. (서식, 아래 참조)

이는 이들을 파악하여 격려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선교사역 중 본교인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교적번호	이름	교구	성별	생년월일	파송기관	사역지	사역기간	연락처

선교위원회 보내는 선교사 모집(자원봉사자)

① 언어 특기자 (영어, 기타 제2외국어)

② 의전(儀典) 부분에 경험이 있거나

③ 행정 지원 봉사자

(본부서적 지원, computer관련업무, 전화 수신사, LMTC 행정봉사자 기타 본부에서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보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 보내는 선교사원?

현지에 가서 사역하지 않지만 현지의 선교교에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수시

모집대상: LMTC 수료자

제출서류: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사역지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LMTC 지침

1. 집중 LMTC 4월 30일 (월) 1일 집중

: 집중 LMTC 이수자는 2001년도 여름 단기 선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단기선교사(1년) 지원자는 정상 LMTC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2학기)

: 기간은 다소 상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집중 LMTC 이수자는 단기선교에 참가할 수 있지만 1년 단기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정상 LMTC를 받아야 합니다.

4. 교·대·청에서는 2001년도 여름 단기교후 후보자를 4월8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LMTC를 받지 않은 사람은 4월 30일 집중 LM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은 각 부서별로 개별 통지 하였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첫 걸음

박순성 (고등부 돌로스 천부장)



고등부에 올라와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된 부서가 바로 돌로스이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돌로스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했었고, 결국 기쁘게도 돌로스 모임이 만들어졌다. 1년 동안 돌로스 천부장에서 활동을 해보니, 돌로스라는 곳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많은 학교가 연합되어 있었다. 돌로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주님을 위하여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한다'는 뜻이다. 어느 학교에서나 충현교회 고등부 학생이 3명 이상 있다면 돌로스를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 돌로스 회원과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학교에서 돌로스 모임을 갖게 된 이후 학교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학교가 조금씩 변해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수많은 학교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현재 돌로스는, 고등부 분반공후 후 각 학교 돌로스 천부장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늘 감싸주시며 채워주시는 선생님들 내 분이 함께 기도회와 모임을 갖고 있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돌로스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돌로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기독교 계열의 학교일 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불교 계열의 학교인 경우에는 모임이라는 것 자체를 학교에서 갖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이 모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현재 결성되어 있는 학교가 30여개에서 50여개로 결성되는 것이 우리 돌로스의 기도 제목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학교라는 곳이 가장 가까운 전도지이며 이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그래서 난 우리 돌로스가 너무 좋고, 더욱더 많이 부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짜 만능주의

고등부 회원



얼마 전 시드니 올림픽에서 수영3관왕인, 이연 소프가 시드니 대학의 입학제의를 거절하며 외신과 했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

"학교 밖에서 성취한 일로 다른 학생들보다 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연예인 아니,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요즈음 가장 팽배해지고 있는 문제를 꼽아보면 나는 물질만능주의, 외모만능주의와 더불어 공짜만능주의를 꼽고 싶다. 물질만능주의와 공짜만능주의, 이것은 분명 양자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자 역설이다. 하지만 공짜라는 어진 것의 의미를 찾아보면 많은 의미 중에서 '공'으로 얻는 것'이라는 뜻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공짜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정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성취하는, 또는 공짜라는 말은 난관을 만났고 또 그것을 겪으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 물론 이것을 달가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고된 일도,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한 때 문제가 되었던 대학 부정부패학사건과 인제나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비리, 부정 등도 공짜만능주의와 밀접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다면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Jesus CEO'라는 책을 보면 프로는 하고싶지 않을 때라도 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거기에서 프로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프로는 아니다. 누구에게 보초받거나 지름길을 통한 방법이 아닌 때로는 단호하게 'NO' 할 줄 아는 인생의 프로페셔널을 이야기한다. 할 일을 수 없고 또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무를 풀지 않는 젊은이'가 되길 생각하고 바란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장동수 (고등부)

충현교회 고등부에서 오래된 소그룹 중 하나인 마라톤 성경부.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연극을 하는 그래서 성스러운 연극, '성극'을 하는 모임입니다.

아랍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마라톤은 '안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하나님께는 영광을'이라는 취지에 16년 전 창설되었습니다.

세상의 '연극'과 하나님께 올리는 '성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극은 연극처럼 단지 대본에 있는 것을 연기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성극이 주는 메시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극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극 대본에 몰두하다보면 내가 가롯유다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한 가롯유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주님이 만기신 임을 행하는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성극은 이처럼 '나'를 뒤돌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묵상합니다.

성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극을 드리는 이가 받은 은혜, 그리고 관객들이 받는 더 큰 은혜, 이것은 진정한 주님이 주신 '성극'이란 놀라운 선물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만평

글 · 그림 장민/ (minj74@jaangminn.com)

그의 몸은 다 거저지만 산·인과 생명의 길은 돈독하게 산·인한...



이제 사탄으로부터 생명의길로 생명의 길로 돈독하게 산·인한... 변화된 모습이 있다... '인'을 살린다.



제2교육관 소개 제2교육관을 사십니까?

제2교육관의 설립취지는 충현교회 젊은이들의 교육과 신앙활동을 위한 모임의 정소로서 지어졌다. 주로 사용되는 목적은 충현교회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의 집회 및 교육과 신앙활동을 위한 모임의 정소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건물의 구성은 각 층별로 다음과 같다.

층별: 2층과 3층 설치 후 흡수공간으로 재공급 예정

1층: 대집회실(400여석)

사무공간(4호) : 고등부 교사 사무실

3층: 중집회실

사무공간(3호) : 대학부 교사 사무실

모임공간(3호, 4호) : 중·고등부 모의실

소그룹 활동의 모의실

2층: 중집회실

사무공간(2호) : 청년1부 교사 사무실

모의공간(2호) : 중·고등부 모의실

1층: 만남의 장소(코이노니아홀)

개별 만남과 휴게, 다과회, 음주와 경술시 제공 코너

지하층-4층: 주차장

4층 대집회실에서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의 집회정소로, 2층과 3층의 중집회실에서는 그룹별 성경공부와 소그룹활동정소로, 1층에서는 모임과 집회의 정소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2월 19일에 문을 연 '코이노니아홀'은 그동안 교회의 위치상 어려웠던 개인간의 만남, 간단한 모임 등을 위해 주중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하여 많은 성원을 얻고 있다. 코이노니아 홀의 개방으로 제2교육관은 점차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애용하는 정소로 되어 갈 예정이다. 이에 우리 교대청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코이노니아 홀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관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어 나가야겠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57장)

이 찬송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에 조사 자료를 모아 보았으나 작시 작곡가 프랭크 데이비스가 미국의 목사요, 19세기 후반의 신앙 부흥운동 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의 찬송가 작사, 작곡에도 자질을 타고 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피터링이 쓴 예배집에 있는 제1만 예배 하나를 소개한다. 참으로 아버지를 잘 따르는 어린이가 하나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그 노크 소리만으로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있었다.

"누구나, 들어오너라."

그 어린이가 들어 왔다. 아버지는

"그래, 이제는 무엇을 해줄까?"

"아예요, 아빠. 그저 아빠와 같이 있기 싫어서요."

하고는 그 어린이는 아무 말 없이 서재 한 모퉁이에 가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아빠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여기 없다면 저 애가 저토록 평화스럽게 놀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방이라면 분명히 그 애는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 어린이가 아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가 가까이 계시어야 하겠다.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후렴) 주여 주여 나를 인도 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 하소서 아멘

출전: 찬송가해설 (김경선씨/신앙에 출판사)

나를 배려 주의 십자가

날마다 새롭게

양 승 복 (집사, 16교구)

나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출석하던 초기에 담배를 끊고 다음엔 술마저 입에 대는 것이 싫어졌다. 그것들이 모두 주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 덕인지는 한참 후에야 알았다.

특별히 회심하게 된 간증거리 없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나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매일 믿음을 의심하며 지내왔다. 아침에는 성령 충만하였다가 점심에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저녁에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보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불현듯 깨닫는다. 모태신앙도 아니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나이 삼십에 받아들인 신앙생활이라 번덕이 죽 켜듯하다. 이렇듯 조석변개하는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을 한 곳으로 몰아가듯이 나를 재촉하신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많이 변한 나를 보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몸조리를 했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나를, 술의 힘을 빌려 입을 매던 나를, 매일 자학하며 한탕주의를 꿈꾸며 살던 나를, 주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셨다. 신앙 가진 것, 그렇게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런 나를 구속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라는 말씀에 새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년을 살아가다. 또 하나님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야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저히 없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17교구 김현아 권할 세계적으로 희귀한 병 루프스도 투병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복미 성도(여39세) 뇌암, 폐암으로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이승기 성도(남40세) 소방관으로서 총재동 화재사고 전압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깨어나 치료중이고, 다리 혈액순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덕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강남시립 병원원이 복음을 전했던 영혼인데 지금 크로이펠트 아플링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그분에게 전도팀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뒤로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는 그가 이전 노를 뜨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위로가 요구되는 환자들입니다.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쉬지 말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게서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라도 자족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충군같이 성령님께서 감사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날 나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십니다.

2001 충현체육대회 경기요령

종목	선수 선발 요령	진행 요령	배점 기준	심판 판정 기준
1. 십자가 군병	대·정·장년부 남자50명, 여자150명으로 구성	입장식 인원외 선수가 되어 들어올린 숫자판의 수대로, 종대정렬 후 앉은 번호까지	4회 경기 진행 100, 80, 60, 50	마지막 줄까지 어김없이 앉은 번호가 완료되면 깃발을 크게 들어 올린다
2. 매거리 축구 (동시진행)	대·정·장년, 연합팀에서 남20명, 여20명으로 구성	일반적인 경기 방식, 전후반 각 10분씩	1등 100점, 2등 80점	심판위원회에서 세부 진행규정을 만든다
3. 농구 (동시진행)	중2명, 고2명, 대1명, 주전선수 유지 후보선수는 자율 결정	일반적인 경기방식으로 전후반 10분씩	토너먼트, 3, 4위전 없음. 100, 80, 60, 50	심판위원회에서 세부 진행 규정을 만든다
4. 어깨동무 릴레이	대·정·장년부의 남7명 여3명으로 구성, 후보선수 없음	1 사람으로 시작, 반환점을 돌아올 때마다 1 사람씩 늘고 10사람이 될 때까지	단란 승부 100, 80, 60, 50	반환점을 돌아와 출발점에서 정확히 연결하여 출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5. 피라미드 쌓기	유치부 남5, 여5, 소망부 남5, 여5으로 구성, 후보 선수 없음	바구니를 1 사람이 1 개씩 머리에 쓰고 반환점으로 갖고 가 피라미드를 쌓는 릴레이	단란 승부 100, 80, 60, 50	반환점에서 정확하게 탑을 쌓는지를 보고 반드시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가야한다
6. 장애물경기	각팀에 있는 최소년 회원 중 남7명 여7명으로 구성, 후보선수 없음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통과하여 돌아온 후 다음 사람과 릴레이	단란 승부 100, 80, 60, 50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정확하게 해결 하고 가는지를 본다
7. 바람 잡는특공대	중·고·대학부 남5명, 여5명으로 구성하고 후보선수 없음	18명이 대형 보자기를 마주잡고 호흡을 같이하여 들렀다 내리면서 바람을 잡는다	4회 경기 진행 100, 80, 60, 50	1분의 시간 경과후 바람의 양을 결정한다
8. O·X 퀴즈	전체 인원	성경상식과 갈라퀴즈로 챔피언 탄생	개인경기	진행요원과 협력하여 탈락자를 가려낸다
9. 응원전	전체 인원	오전 1회, 오후 1회를 4개팀 동시에 진행	200, 160, 120, 100	각 팀의 응원 성적을 집계하여 순위를 낸다
10. 굴렁쇠 릴레이	유년·초등·소년부 남자3명 여자3명과 목사, 장로로 구성하고 후보선수 없음	이런시점의 주역을 새기며 굴렁쇠 릴레이(팀당 5명)	단란 승부 100, 80, 60, 50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를 정확히 굴러고 돌아오는지를 본다
11. 줄다리기	중·고·대·정·장년부 남자50명, 여자50명으로 구성하고, 후보선수 없음	전래 경기방식으로 진행, 1m이상 끌고 가면 승리, 단 30초가 지나면 그 지점에서 결정	토너먼트, 3, 4위전 없음 100, 80, 60, 50	정확한 인원과학과 1m거리를 판정한다
12. 400계주	초·중·고·대·정·장로역자·장로(권사) 각 남녀 1명씩 남자8명, 여자8명으로 구성	전래 경기방식으로 진행, 교역자가 먼저 뛰고 나이 어린순으로 편다	단란 승부 100, 80, 60, 50	라인 반칙과 바통 터치 존 반칙을 주의하여 본다
13. 자연보호	전체 인원	전교인이 협력, 주변정리와 분리수거를 한다	200, 160, 120, 100	분리수거와 주변정리, 청결을 판정한다

주님의 참사랑을 심어주셨으면

박 진 수 (영아부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이 한 곳에 집
중된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고요함 속에서 아이들은 "두려움 반, 신
기 반"의 눈을 깜빡이며 무대를 바라
본다. 다들 아닌 "인형극 시간". 좁은
무대 위에 등장하는 성경 속 주인공들
을 통해 즐거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는 아이들의 즐거운 얼굴을 볼 때면,
가슴 뿌듯함과 부족함에 따른 미안함이
교차된다.

처음으로 인형극 봉사를 하게 된 것은
나의 작은 달란트를 알고 계신 영아부 전
도사님의 부탁을 받고부터이다. 나의 신앙은 미
흡하지만 "부자와 나사로"를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 전해야 할 은혜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인형극을 제작하고,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한다.

1인 3-4역의 목소리를 내고 시나리오, 인형제작 및 의상과 무대미술까지 초동부
박선생님과 함께 많은 땀을 감당하지만 늘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많은 아쉬움이 남는
다. 좀 더 아이들에게 은혜 증만한 인형극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
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경중만한 대본을 써 주실 분, 인형틀의 예쁜 의상을 만들어
주실 분, 다양한 목소리를 내 주실 분, 예쁜 무대 그림을 그려 주실 분, 함께 공연에
참가해 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더 찬란한 공연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교회 안은 물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인형극을 찾고 싶어할 것 같다.
좀 더 전문화된 시경과 미술을 만들어 앞으로 천국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 나의 작지만 큰 소망이다.

3월은 심방의 달

송 혜 경 (영아부 교사)

영아부에서는 지난 3월 한 달을 '심방의 달'로 정하였다. 작당이 있는 선생님들 비
롯한 많은 선생님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기들의 가정을 기도하며 심방하는 데 정
성을 쏟았다. "선생님,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하시던 부모님도, 물어들어 버스
와 저철을 타고 찾아오는 선생님의 사랑에 감사해 하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정의 이러한 일, 즐거운 일 등을 이야기하며 기도제목을 말씀하셨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작은 일, 큰 일 구분하지 않으
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심을 주시는 그 분이 함께 하시기에 선생님들은 자신감
을 갖고 이렇게만 느껴졌던 심방을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다.

매일 매일 아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생님. 기쁨 떠나며 슬플 때, 늘 감사하
고 순종하는 선생님. 영아부 선생님 모두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정 원 정 (유아부)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에서

전 희 (권찰, 12교구)



4살 · 5살의 어린이아
들. 제가 이들을 만나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되
어갑니다. 우리 어린 생명
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
며 모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수
줍어 하던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성경공
부를 할 때도 "예수님요!"라는 대답으
로 뿌듯함도 안겨주고 전화를 하게
되면 한 주간의 일도 술술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고도 싶어합니다.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면 제가 아
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
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았음을 느낍니
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교회로 나
와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작은 손을 모
아 쥐고 기도하는 모습은 나도 주님을
이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
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정말 사랑스
운 아이들. 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가
려 합니다.

나는 네 살 난 아이의 엄마이다. 내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영아
예배에 참석했었다. 그 때에도 전직부
로 참석할 걸 하는 아쉬움이 앞설 정도
로 영아부 예배는 은혜로웠다. 은혜로
움을 뒤로하고 아이가 네 살이 되면서
유아부로 올라가게 되었다. 아이는 유
아부로 올라오면서부터 혼자 예배를 드
렸다. 대견하기는 했지만 유아부의 예
배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된 궁극적인 지
에 겨울성경학교에 참석을 하였다. 말
씀을 들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개
임을 할 때에도 영아부 때와는 많이 다
른 모습이었다. 아주 주님의 기쁨 말씀
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모습을 보면서 '영
아부에서의 교육이 밀박탕이 되니까 유
아부에서 이런 예배 모습이 만들어 지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이
들 모두가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는 생
각과 함께 영아 예배의 소중함을 새
삼 깨닫게 되었다.

유치부 아기들에게 배우는 선생님

정 한 나 (유치부 교사)



선생님이라니! 유치부에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과 선생
님들이 계시는데 말이죠. 꼬맹이일 때부터 따라다니던 선생님들과 같이 봉사하게 된
지금,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씩 저로 하여금 스스로 미소짓게 만들기도 한다
입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는 제가 아직 6살 꼬마 그대로인가 봅니다. 저에게 선생님들
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이신 것 처럼요.

겨울성경학교 들쭉날 아침이었어요. 예배실 어디까지 광! 소리가 나더군요. 그
곳에는 부감 권사님까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예배실 바닥에서 무언가를 두드리
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쪼그린 채 앉아서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
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항상 궁금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음... 못
이 조금 튀어나와 있길래."라고 말씀하시고는 앞치마를 입고 앞치마를 든 채 활짝 웃으
시면서 뒤돌아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지도 때
대(?) 선생님이 되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애기마다 보니, 우리 이번 아이들 자랑을 하고 싶어했죠. 아이들은 간질 줄을 몰
라요. 유치부 선생님들은 유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깨
끗할 수 있다면 한없이 유치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힘들
면 힘들다고 순간 순간마다 죄인 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귀여워하시겠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과감한 디자인(?)의 스타트
를 입고 어린 영혼들 앞에서 울동을 할 때면 하나님과 유치부 친구들 앞에서 이미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어 감사하답니다. 봉사를 하면, 내가 베풀 것
보다 오히려 더욱 채워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
갈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만나게 하신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의 모습이지만 주님게서 이런 모습이라도 사용하실 원하신다면, 당
신께서 친히 채워나가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할 때나 전파 심방을 할 때, 때때로 아이들 손에 옷가지와
신발주머니를 챙겨서 돌러보며 때도 항상 기도한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이들에
게 다가 가시는 당신의 깨끗한 툴로 사용되어 지시기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된지니



소금

언뜻 소금이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요즘,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마음도 괜히 심란해서 부쩍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나를 보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왜 그래? 너무 잘 알게, 교회도 다니면
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친구의 눈에도 어울리지 않게 비춰졌던 모양이다.

그렇다. 난 살아있고 있고 지내며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의 역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
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인의 향기가 배어 나올 수 있도록 깨어있고 노력하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여 하는 것이
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하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
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모습으로 그
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
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런 강도도 얻지 못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도 또한 느끼지 못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나감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심을 믿고 세상 속으로 단단히
부러져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또 썩어져 들어가는 악한 모
습을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겠다.

(오지현 기자)

